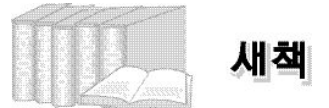


북스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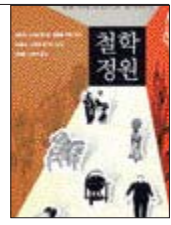
철학 냄새 안나는 고전으로 철학하기



철학 정원 김용석 지음

고전(古典)의 사전적 정의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 작품'이다. 그래서 고전은 필독서 목록과 궤를 같이 하고, 종종 삶의 정수(精髓)를 일깨워 준다. 고전을 철학과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이유다.

부산의 영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김용석씨가 대중철학서를 냈다. '김용석의 고전으로 철학하기'라는 부제를 단 '철학 정원'은 철학 대화에 힘써왔던 저자의 학문적 지향점의 연장선상에 있다. 저자는 '인문학의 책으로 본 과학'(공저·한겨레출판), '깊이와 넓이 4막16장'(휴머니스트) 등 관련 서적을 이미 냈다.



저자는 '사유를 즐기는 짧은 벗들에게'라는 제목의 머리말에서 "이 책은 고전의 소개도 아니고, 해설도 아니다"고 말한다. 자유로운 사유를 위해 "고전이 제공하는 생각거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책을 쓴 이유라고 밝힌다. 그래서인지 저자가 내세운 고전 목록이 조금은 독특하다. 동화에서 영화, 민중문화 그리고 과학 고전까지.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새끼'는 열림과 닫힘에 대해 생각해 한다. 오리들의 '단란 사회'에서 배척됐던 미운 오리새끼를 백조들이 받아주지만, 이는 결국 '백조들의 단란 사회' 일원이 되는 것일 뿐이다. 오리든, 백조든, 자신들과 같은 조건을 가진 자들에게만 열려있는 것이다. 인간은 어떠한가.

'프랑켄슈타인'을 쓴 메리 셸리는 작품 속 인조인간의 이름을 짓지 않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을 만든 과학자의 이름이다. 저자는 이 괴물의 '이름없음'이 소설의 비극적 상황을 불렀다고 말한다. 김춘수의 유명한 시 '꽃'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꽃이 되었다"던 것처럼, 창조자에게조차 부름당하지 못한 '괴물'은 그 무엇도 될 수 없었다.

소통과 관계의 중요성은 섹터취페리의 '어린 왕자'에서도 강조된다. 저자는 어린 왕자와 여우가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장면을 예로 든다. 여기서 저자가 주목한 것은 관계를 맺어주는 매개의 역할이다. 여우는 "아무 말도 하지마. 말은 오해의 근원이야"라며 육성언어의 미디어조차 거부하지만, 현실에서 인간들이 관계를 맺는 데는 휴대전화 등 수많은 매개들이 등장한다. 사람이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매체에 길들여지는 것은 아닌지 저자는 묻는다.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은 마키아벨리즘의 대표 명제지만 정작 그의 책 '군주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무능한 자의 변명"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이를 부정한다. '군주론'을 '능력의 인간학'으로 다시 읽어볼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또 과학 고전인 갈릴레오의 '대화'를 통해 그가 주장했던 지동설은 과연 신을 부정한 것인지, 찰리 체플린의 영화 '서커스'에서는 소외 없는 자가 있을 수 있는 건지 등의 질문을 던진다. 책 속에는 이 밖에 동화, 문학, 영화, 철학, 정치·사회·문화사상, 과학 등 6개 분야의 고전 55권에서 뽑아낸 생각거리들이 넘쳐난다. <한겨레출판·1만5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섹터취페리의 삽화. 여우는 왕자에게 "제발 나를 좀 길들여줘"라고 말한다. 저자는 "그러나 누가 누구를 길들이게 될까"라는 물음을 던진다.



중국 대표작가 모엔

소설 5권 번역 출간

노벨문학상이 발표될 무렵이면 중국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현대 중국문학의 대표작가 모엔의 소설 3종 5권이 동시에 번역·출간됐다.

'홍카오량 가족'은 장이모우 감독의 영화 '붉은 수수밭'의 원작소설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홍카오량 가족'의 첫 번째 장에 해당하는 '붉은 수수'가 문고판 형식으로 나온 적은 있지만, 다섯 편의 중편이 한데 묶여서 완역된 것은 처음이다. <문학고지식사·1만8천원>



'티엔탕 마을 마늘종 노래' (전 2권)는 문화대혁명의 후폭풍이 몰아친 1980년 작은 농촌 티엔탕에서 벌어진 마늘종 붕괴 사건을 통해 중국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 '풀 먹는 가족' (전 2권)은 저자가 어린 시절 들었던 민담과 전설 등을 토대로 쓴 6가지 판타지 소설이 실려 있다. <랜덤하우스·각 권 9천원>

책벌레 22명 통해 본 조선시대 출판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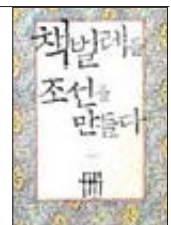
책벌레를 조선을 만들다 강명관 지음

세계 최초로 꼽히는 고려의 금속활자는 우리문화의 자긍심을 상징하는 키워드다.

금속활자를 통해 우리문화가 찬란히 꽃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고려시대에 금속활자가 인쇄문화에 기여한 사례는 드물다. 그만큼 금속활자는 대중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조선 태종과 세종대에 문화, 역사, 철학서적 등 수많은 종류의 책이 출간된 게 사실. 하지만 출간의 본질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지배층을 확대·재생산하기 위한 것이었지 민중들의 지식축적과는 괴리가 있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한글활자로 인쇄한 책



자들도 소수 지배계층에게 필요한 언해본 서적이었을 뿐 민백성에게 보급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부산대 한문학과 강명관 교수가 펴낸 '책벌레를 조선 만들다'는 조선시대 출판과 서적에 관련된 인사 22명을 통해 출판문화와 지식의 지형도를 비관적으로 돌아보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당시 지식인들의 저술이 독자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수광의 '지봉유설'은 중국 서적들을 읽은 뒤 주해를 단 것이고 이익의 '성호사설'도 중국 책을 읽은 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책이라는 것이다.

조선 최고의 문장가로 불리는 박지원의 개성남치는 산문과 사유도 중국 공안파(公安派) 작가의 개성을 강조하는 문학의 비평이론과 김성탄의 소설비평에 기원을 두고 있다.

박지원류의 문체와 사고를 탐안했던 정조의 문체반정(文體反正)은 책과의 전쟁으로 기록된다. 정조

는 북경에서 수입된 천주학, 서양기술학 등 불순한 사유의 유통을 금지하는 대신 주자대전집 출간을 기획하는 등 국가기관 유지에 대한 책을 펴냈다.

중국에서 방대한 책이 수입된 18세기에는 '독서를 위한 독서'를 추구했던 선비 유만주와 같은 독서광도 탄생했다.

유만주는 자신이 남긴 독서일기인 '흥영(欽英)'이란 책에서 "을유년(1765년·11세)부터 1780년까지 읽은 책이 아직 1천권이 안되니 박식하지 못한 것이 마땅하다"고 탄식했다.

강명관 교수는 "조선의 책 생산과 유통, 그리고 독서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며 "이 책이 근본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없지만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한다. <푸른역사·1만5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movies 인기영화 즐겨보는 시간 보내세요

Happy Time 영화안내

<p>영화보다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p> <h2 style="font-size: 1.5em; color: #e91e63;">메가박스</h2> <p>구. 런던역사거리 ☎예매1544-0600</p>	<p>—은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p> <h2 style="font-size: 1.5em; color: #e91e63;">엔터 시네마</h2> <p>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p>	<p>환호시광 영화시영 • 예매: www.joyco.com / 1588-7941</p> <h2 style="font-size: 1.5em; color: #e91e63;">컬럼버스 시네마 상무점</h2> <p>상무점 (상무병원과 아트도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앞편)</p>	<p>색깔있는 영화시영 • www.cinusc.com / 1544-0070</p> <h2 style="font-size: 1.5em; color: #e91e63;">씨너스 전대</h2> <p>북구보전소 건너편 ☎ 511-1000</p>	<p>즐거움이 가득 • www.mc12.co.kr / 1588-9101</p> <h2 style="font-size: 1.5em; color: #e91e63;">무등극장</h2> <p>충장로 1가 ☎ 232-9106</p>	<p>세로문기영 • www.primuscinema.com/www.jelldinema.co.kr</p> <h2 style="font-size: 1.5em; color: #e91e63;">제일시네마</h2> <p>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p>
<p>1관 바르게살자 (154) 최고급판</p> <p>2관 궁녀 (184)</p> <p>3관 러시아워3 (154)/내다이어리 (124)</p> <p>4관 행복 (154)</p> <p>5관 레지던트아일랜드 (184)</p> <p>6관 비커밍제인 (124)/브레이브원 (154)</p> <p>7관 어캐너머의 연인 (184)</p> <p>8관</p> <p>9관 카펫 베토벤 (124)/바르게살자 (154)</p> <p>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다이얼업이 종료됩니다.</p> <p>•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이금 부과</p> <p>★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p>	<p>빛고을·문화의 수도 엔터시네마 연인과 가족의 오붓한 문화공간</p> <p>내가 엔터시네마를 찾는 이유...</p> <p>저의 취미는 말하지만 남들 더 믿는 게 바로 영화 관람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지 않고 엔터시네마를 찾았을 때는 저의 특별한 점을 믿음이 허락해주고, 영화자체에 관련된 용어를 할 수 있어서입니다.</p> <p>다른 영화관에 가 보았지만 사람들도 몰리고 소리가 너무 크고 영화가 잘 보이지 않아서 엔터시네마를 찾았을 때는 저의 특별한 점을 믿음이 허락해주고, 영화자체에 관련된 용어를 할 수 있어서입니다.</p> <p>정말 즐겁게 대해주는 티켓팅과 직원 덕분에 영화보는 기분이 편할 듯 합니다.</p> <p>또한 엔터시네마 내부전체가 너무 깨끗해서 좋았으며, 또한 장우천 사적 감독으로 고부 3부작을 같은 엔터시네마에 있어서 저는 늘 영화를 보러 올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 직장인 김민지</p> <p>★주최점이 위치한 극장 http://www.entrar-cinema.co.kr★</p>	<p>1관 행복 (154)</p> <p>2관 카펫 베토벤 (124)</p> <p>3관 궁녀 (184)</p> <p>4관 궁녀 (184)</p> <p>5관 러시아워3 (154)/비커밍제인 (154)</p> <p>6관 레지던트아일랜드 (184)</p> <p>7관 사랑 / 바르게 살자 (154)</p> <p>8관 권순원사남치사건 (154)/브레이브원 (154)</p> <p>9관 어캐너머의 연인 (184)</p> <p>10관 바르게 살자 (154)</p> <p>• 오늘 최대 주자점 • 예매심야 상영합니다</p> <p>1588-7941</p> <p>클라우드해킹 (107) 정말인 상영중 상영권만 판매 (11월 2일) - 1년</p>	<p>1관 레지던트아일랜드 3 (184)</p> <p>2관 행복 (154)/가짜아이씨라 순정 (184)</p> <p>3관 궁녀 (184)</p> <p>4관 브레이브원 (164)/러시아워3 (154)</p> <p>5관 비커밍제인 (124)/카펫베토벤 (124)</p> <p>6관 어캐너머의 연인 (184)</p> <p>7관 바르게 살자 (154)</p> <p>•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p> <p>• 무료주차 3시간</p> <p>• 이동통신사 할인혜택</p> <p>• 세너스북사 사무(모바일·패키지)</p> <p>ARS 전화예매 1544-0070</p>	<p>1관 러시아워3 (154)</p> <p>2관 사랑 (154)</p> <p>3관 궁녀 (184)</p> <p>4관 어캐너머의 연인 (184)</p> <p>5관 바르게 살자 (154)</p> <p>6관 행복 (124)</p> <p>7관 카펫베토벤 (124)/브레이브원 (124)</p> <p>8관 비커밍제인 (124)/브레이브원 (124)</p> <p>9관 레지던트아일랜드 3 (154)</p> <p>•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수업) 3시간 무료주차</p> <p>• 컴퓨터스캐너를 위한 전용휴구 마련</p> <p>• 편의점이 가능</p> <p>•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p> <p>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p>	<p>1관 궁녀 (184)</p> <p>2관 어캐너머의 연인 (184)</p> <p>3관 행복 (154)</p> <p>4관 바르게 살자 (154)</p> <p>5관 레지던트아일랜드 3 (184)</p> <p>6관 러시아워3 (154)/브레이브원 (154)</p> <p>•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p> <p>• 무료주차 3시간 (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p> <p>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p>